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동북아국제통상전공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는 세계 통상환경 및 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통상전문가와 스마트물류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1997년 설립된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교육부 지방대특성화사업 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경제학 및 통상 이론·실무 교육, 외국어 교육, 동북아 지역경제 교육을 통하여 국내 경제·통상 분야의 대표적인 특성화 학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통상전문가를 양성해 왔다.

지금 세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스마트물류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통상의 형태를 점차 다양하고 복잡하게 바꾸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블록과 통상규범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글로벌 통상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와 함께 통상과 물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공급망을 이해할 수 있는 융복합 전문가의 등장이 필요하다.

동북아국제통상전공, 스마트물류공학전공, IBE전공으로 이루어진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는 동북아국제통상과 스마트물류공학이 융합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동북아국제통상전공과 스마트물류공학전공의 전공과목은 상호 공유되며, 동북아국제통상과 스마트물류공학 과목으로 구성된 융복합 트랙이 개설된다.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약할 것이다.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동북아국제통상전공



교육 목표

국제통상 분야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외국어·경제학·지역연구 등의 세 요소를 최적으로 결합한 국내 유일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동북아시아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지역통상전문가, 글로벌 사이언티스트와 글로벌 스마트물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영어 기반의 경제학 기초 교과목을 학습하고, 중·일·아·노어·영어 중에서 주전공 언어를 선택하여 자격증 취득과 현시대학 유학파견 및 국가별 경제과목과 더불어 전공심화트랙을 통해 데이터분석능력과 물류관련 과목을 학습함.



국가 소개

구분	통상국가	담임교수	소개
동북아 국제 통상전공	중국	김민수 김부용	중국어를 주전공 언어로 선택하고 중국통상 전문가로 특화하는 교육과정
	일본	김종인	일본어를 주전공 언어로 선택하고 일본통상 전문가로 특화하는 교육과정
	러시아	성원용	러시아어를 주전공 언어로 선택하고 러시아통상 전문가로 특화하는 교육과정
	미국	한도숙 김지영	영어와 제2외국어를 기반으로 미국통상 전문가로 특화하는 교육과정

구분	트랙	소개
전공 심화	글로벌 리더	동북아 4개국(중국,러시아,일본,미국) 가운데 선택한 국가의 지역학과 언어과목을 집중적으로 수학하며, 일부 선발된 인원에게 해외대학 유학기회(등록금 전액지원, 정규학점 인정 등)를 제공합니다. 미국 아칸소주립대학, 미국 아메리칸대학,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중국 상해복단대학, 중국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 일본오사카공립대학, 일본요코하마시립대학, 일본키타큐슈시립대학 등에서 유학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경제학과 데이터분석을 결합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실증기반의 경제분석기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교육과정입니다. 동북아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의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배출함으로써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스마트 물류	국제경제학에 대한 이해, 동북아국가에 대한 지식 및 외국어 능력을 스마트물류전공과 결합한 융합교육과정입니다. 물류학과 지역학의 융합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스마트물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진로

- 동북아국제통상전공 : 국제기구와 해외 명문대를 비롯하여 국가고시, 공공기관, 금융권, 우수기업 등 최상위 취업시장 진출

자격증

- 동북아국제통상 : HSK, JLPT, TOEIC/TOEFL,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비교과 활동

- 공동 : 복단대학 단기어학과정, 연수생 파견프로그램, 교수면담 평가, 방학기간 어학특강, 취업특강 및 멘토링프로그램, 소모임 운영



동북아국제통상전공

기초	경제학원론, 미시경제론, 경제통계학			
필수	중국어입문 초급중국어회화 중국어독해작문(1) 중국경제론	일본어입문 초급일본어회화 일본어독해작문(1)	러시아어입문 초급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독해작문(1)	통상국가별언어선택 초급영어회화 영어독해작문(1)
선택	동북아통상입문 경제학원론 경제학적 사고와 통계	동북아통상입문	동북아통상입문 초급러시아경제강독	동북아통상입문
추가	데이터프로그래밍	데이터프로그래밍	데이터프로그래밍	데이터프로그래밍

1학년

핵심	거시경제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필수	한중경제관계론	일본경제론	러시아경제론	미국경제이론과정책
선택	중급중국어회화 중국어독해작문2 미중화폐금융론 중급러시아어경제강독 아시아경제발전론	중급일본어회화 일본어독해작문2 미중화폐금융론 중급러시아어경제강독 아시아경제발전론	중급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독해작문2 미중화폐금융론 중급러시아어경제강독 아시아경제발전론	중급영어회화 영어독해작문2 미중화폐금융론 중급러시아어경제강독 아시아경제발전론
기초	미시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스마트물류개론 화물운송론	미시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스마트물류개론 화물운송론	미시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스마트물류개론 화물운송론	미시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스마트물류개론 화물운송론

2학년

국가별 유학

2학년 2학기~3학기 1학기

전공국가별 현지대학 유학프로그램(글로벌리더트랙이수자에한함)


 트랙
교과목


동북아국제통상전공

3 학년

공통	국제금융론			
필수	중국경제이슈분석	한일경제관계론	한러경제관계론	한미경제관계론
선택	중국시장마케팅 중앙아시아경제론 화폐금융특강	중앙아시아경제론 화폐금융특강	중앙아시아경제론 화폐금융특강	중앙아시아경제론 화폐금융특강
추가	HSK실전특강, 계량물류분석론, 경영과학, 금융투자전략, 인공지능 스마트시티물류, 금융데이터분석			

4 학년

공통	동북아지역통합			
필수	글로벌 현안 분석과 중국경제 연구	일본경제이슈와 관점 일본경제 분석과 논문 작성	유라시아 국제운송 회랑의정치경제 유라시아 경제분석	미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미국경제와 세계의 경제불황
선택			국제경제러시아어회화	
추가	거시자료분석, 물류비즈니스분석, 시뮬레이션, 물류GIS			

관련전공

전공명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중국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일문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영문학, 정치외교학
과목명	국제경제·금융 국제경영·물류 무역·통역실무 중국정치외교	국제경제·금융 국제경영·물류 무역·통역실무 일본정치외교	국제경제·금융 국제경영·물류 무역·통역실무 러시아정치외교	국제경제·금융 국제경영·물류 무역·통역실무 미국정치외교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물류대학원, 경영대학원			
전공명	동북아통상학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 물류학 중국학, 정치외교학	동북아통상학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 물류학 일문학, 정치외교학	동북아통상학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 물류학 정치외교학	동북아통상학 경제학, 무역학, 경영학, 물류학 영문학, 정치외교학

취업기업

동문선배 취업기업

인천대학교(교수), 금강대학교(교수), 일본동경경제대학교(교수), Brown University(박사생), DukeUniversity(박사생), 린민대학교(박사생), 산업자원부(행정조서국제통상직), 행정안전부(행정고시), 외교통상부(외무고시), 삼일회계법인(회계사), 태영관세법인(관세사), 통일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KOTRA, KOICA, KIEP,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토지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중국공상은행,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저지택, 현대종합상사, 현대중공업, LS전선, CJ, 포스코, 동국제강, 한솔제지, KT, 서울반도체, GS리테일, 농심,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한화재팬, DHL, MAERSK, BMW

주요 진출 현황 : 워크넷

워크넷



주요 진출 현황 : 직업/기업 및 직무



주요진출분야



- 기업체 : 제조 및 유통업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유통부서, 무역회사, 전국유통단지, 해운회사, 항공회사, 운수회사, 화재해상보험회사, 창고관리업체, 세관, 홈쇼핑, 전자상거래업체, 외국계회사
- 정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재경직, 국제통상직, 관세직, 철도행정직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 자영업 : 관세사 사무실

진출직업

- 사무 : 관세사, 영업관리사무원, 포워더(복합운송수선인), 무역사무원, 물류관리전문가, 원산지관리사, 출입국심사원, 국제협력사무원
- 연구/개발 : 국제경제분석가, 물류IT시스템개발자
- 영업/중개인 :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해외영업원
- 경영/기획 : 경영컨설턴트, 해무사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국제통상

주요 진출 직업/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정보 → 한국직업사전 → 키워드 검색 → 관세사
- CJ채용(<http://recruit.cj.net/>) → 채용정보 → 직무정보 → CJ 대한통운 → 포워딩
- 나라일터(<http://gojobs.go.kr>) → 일반채용 → 모집공고
- 알리오(<http://www.alio.go.kr/home.do>)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기관별 공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https://www.jdcenter.com/>) → 기관소개 → 채용공고
- KOTRA(<https://kotra.or.kr>) → 공사안내 → 채용정보 → 채용공고

주요 진출 현황
: 직업/기업 및 직무

관세사 직업소개



관세사

[직업소개]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직무소개]

- 수출·입에 따른 교역대상국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 수출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물품명세서 등)를 작성한다.
-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 수리필증을 교부한다.
-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정보(품목별 제세율, 원산지표시 등)를 제공한다.
- 수입물품인수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품목별 세번 및 세율의 분류와 세액을 계산한다.
-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대행한다.

[필요 기술 및 지식]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평가하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하여 논술식으로 평가한다. 전공의 제한은 없지만 시험과목과 관련 있는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의 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관세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5년 91명, 2014년 90명 그리고 2013년 7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무역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기도 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어떻게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



주요 진출 현황
: 직업/기업 및 직무

대한통운 직무소개



대한통운 직무소개 - 포워딩



[직무소개]

해외 직구, 역직구를 포함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글로벌 e-Commerce 사업자 계약관리 및 IN/OUT Bound 물류 운영, 재고관리, 소형 Packing 부터 통관, 배송까지 One-Stop 물류 서비스와 고객을 위한 맞춤형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글로벌 포워딩 물류 운영

글로벌 포워딩 물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고객사별 화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출입 리드타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현지 통관부터 내륙운송까지 일괄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해상/항공포워딩, 철송, 통관, 운송 등)를 제공

2. 특화사업 서비스(국제전시, 국제이주, 중량물 운송, EMS국제우편물 운송) 제공

정밀기기, 초고가품, 미술품, 문화재 등 다양한 종류의 국제 전시 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계로 이주하는 이사화물의 포장 및 운송, 통관, 현지 배송 등 해외이주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 건설 인프라사업의 EPC 중량물 운송 및 EMS국제우편물 운송 서비스 제공

3. 글로벌 물류 컨설팅

고객 정보 수집을 통해 전반적인 물류 수준을 진단하고 당사의 물류 수행, IT 역량 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컨설팅 제안

4. 사업기획 및 관리

사업 손익 관리 및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포워딩 계약 고객사 및 산업 군의 대내외적 시장 환경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 수립

[필수역량]

“글로벌 포워딩 전문가는 국가별 특성 및 물류환경에 따라 다양한 경우를 예측 및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지식, 동향 파악 능력(Knowledge and Trend Catching)

물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물류 관련 기초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동향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최신 동향과 국제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고객사 보유자원과 회사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진출 현황
: 직업/기업 및 직무

2.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대응(Communication and Fast Response)

물량 변동, 고객 Needs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력으로 다양한 해결안을 도출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합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호 협의하여, 최적의 Win-Win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글로벌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볼 수 있는 센스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어학 역량 및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3. 전략적 협상능력(Strategic Negotiation)

고객사 사업의 정확한 이해와 물류관련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여, 고객의 Needs와 당사의 물류 수행능력을 상호 분석하여 고객과 당사가 Win-Win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4. 종합 물류기업 1위에 대한 자부심과 도전적 사고 방식(Pride and Challenge)

‘내가 하면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다.’라는 자부심을 기반으로 신규 업체수주, Value Chain 확대 및 Blue Ocean을 개발할 수 있는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Career Path & Vision]

직구/GDC 물류에서 ‘역직구 사업’으로, 더 나아가 ‘동남아, 중동, CBE 사업진출’에 따른 글로벌 물류 전문가로 육성

1. 입사 후 포워딩 운영 업무를 통해 포워딩 사업의 기본을 습득

다양한 고객사의 물류 운영을 담당하고, 개선업무를 수행하며 물류 전반에 걸친 Process를 익힐 수 있습니다. 멘토들의 생생한 경험을 전해 들으며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탄한 현장 경험과 기본기를 가지고, 담당 고객사의 물류를 책임지고 고객의 Needs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객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 Skill이 쌓이게 되면 신규 고객의 영업 및 운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포워딩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영업 역량을 쌓아 세계 최고의 물류 전문가로 성장

처음에는 운영을 통해 사업 기본을 익히고 영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고 역량을 쌓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고객사와 여러 종류의 화물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확보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팀을 인솔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고객에 대한 데이터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쌓이게 되면 국내에 제한없이 전 세계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누비는 최고의 글로벌 물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진출 현황
: 직업/기업 및 직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무소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무소개



- 국제통상

[수행업무 및 필요역량]

- 사업환경 분석 : 사업환경 분석이란 기업의 내부환경 분석과 외부환경 분석 과정을 거쳐 사업의 핵심성공 요소를 도출하는 능력이다.
- 경영계획 수립 : 경영계획 수립이란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과 연간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경영목표를 수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능력이다.
- 신규사업 기획 : 신규사업 기획이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투자, 생산, 마케팅과 같은 경영활동들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기획하는 능력이다.
- 마케팅전략 계획수립 : 마케팅전략 계획수립은 조직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 전략에 따라 마케팅목표와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능력이다.
- 마케팅시장 환경분석 : 마케팅 시장환경 분석은 조직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전략을 이해하여 마케팅 목표와 실행방안을 분석하는 능력이다.
- 마케팅믹스전략 수립 : 마케팅믹스전략 수립이란 표적시장에서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최적으로 조합된 전략을 도출하는 능력이다.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 수립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총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 하고, 전략과제를 설정 및 예산 운영을 계획하는 능력이다.
- 부동산관리 : 부동산관리란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 임차, 처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 업무지원 : 업무지원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상 발생하는 인장, 출장, 제 증명 관련 요청 사항을 적시에 지원하고 업무용 시설을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총무문서관리 : 총무문서관리란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의 분류, 보관·보존·폐기와 우편물 관리, 인쇄물의 제작·배포·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 문서작성 : 부서(팀) 내·외부에서 요청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자료를 조사·정리·편집하여 목적에 맞는 문서를 완성하는 능력이다.
- 회의 운영 · 지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 운영 보조, 회의 후 정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 사무행정 업무관리 : 외부로부터의 업무 협력 요청에 따른 접수, 지원, 회신 및 공지 등을 수행하고, 내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일정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 수출입계약 : 수출입계약이란 수출입업무를 위한 계약서 초안준비, 계약 체결 방법결정,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주요 진출 현황
: 직업/기업 및 직무

- 이행과 종료 전반의 과정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 수출통관 : 수출통관이란 국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서류작성, FTA 검토,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의 통관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능력이다.
 - 수입통관 : 수입통관이란 국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서류작성, 관세납부, 사후관리 등의 통관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능력이다.

KOTRA 직무소개



KOTRA 직무소개 - 통상직



[직무소개]

- 경영기획 :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직무
- 마케팅전략기획 : 기업과 제품의 경쟁우위 확보와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목표 수립과 목표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설계 및 실행을 통하여 반응과 결과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직무
- 고객관리 : 현재의 고객과 잠재고객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브랜드에 호감도가 높은 고객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직무
- 총무 :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수출입관리 :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등 수출시장을 개척하며 바이어 발굴, 거래선 신용조사 등 무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처리하는 직무

[필요지식]

- 경영기획 : 사업성분석과 경영전략의 주요 이론, 기업 경영자원(유형, 무형, 인적자원)의 개념
- 마케팅전략기획 : 마케팅 성과 지표 개발 및 관리, 마케팅 조사방법론, 마케팅 믹스
- 고객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고객 심리 관련 지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 총무 : 재무관리 기초, 환경 분석방법, 행사 기획 및 운영, 위기사항 대응 매뉴얼
- 수출입관리 : 4P 전략, SWOT 분석, 목표시장에 대한 지식, 무역영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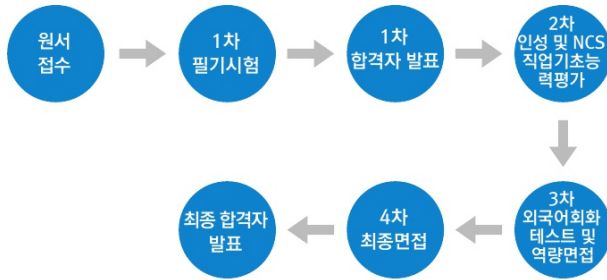


주요 진출 현황
: 직업/기업 및 직무

[필요기술]

- 경영기획 : 경영환경 분석, 기획서 작성 기술, 예산 손익 산출 기술, 회계 계정·세목 분류 기술, 통계 처리 및 분석 기법
- 마케팅전략기획 : 고객 만족도 분석 능력, 시장 환경 분석 기술, 성과지표 관리 능력, 보고서 시각화 및 자료화 기술
- 고객관리 : 통계프로그램 활용능력, 스프레드시트 활용능력,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 고객관리시스템 활용능력
- 총무 : 기초 외국어 능력, 통계분석 기술
- 수출입관리 : 외국어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컴퓨터 활용 기술, 해외시장정보 수집능력

[채용절차]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소개



NCS 관련 직무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 분야별 검색
- 03. 금융·보험 → 01. 금융 → 06. 증권·외환 → 06. 무역금융업무
- 03. 금융·보험 → 02. 보험 → 02. 보험영업·계약 → 04. 위험관리
- 10. 영업판매 → 01. 영업 → 01. 일반·해외영업 → 02. 해외영업
- 02. 경영·회계·사무 → 04. 생산·품질관리 → 03. 물류무역관리 → 02. 수출입관리
- 02. 경영·회계·사무 → 04. 생산·품질관리 → 03. 물류무역관리 → 05. 물류기획

NCS 직무명 : 무역금융업무

[직무정의]

무역금융업무는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업무 지원을 위하여 무역거래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수출신용장 통지 ② 수출신용장 양도
- ③ 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④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 ⑤ 수출대금 사후관리 ⑥ 수입신용장 개설
- ⑦ 수입선적서류 인수결제 ⑧ 외화지급보증 개설
- ⑨ 외화지급보증 지급관리 ⑩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

NCS 직무명 : (보험)위험관리

[직무정의]

위험관리는 보험회사의 지속경영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① 위험관리 전략수립 ② 불완전판매예방 ③ 정보보호
- ④ 위험처리 ⑤ 금융사고관리 ⑥ 평가기준 개선
- ⑦ 위험관리 교육 ⑧ 재물보험 위험분석 ⑨ 인보험 위험분석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명 : 해외영업

[직무정의]

해외영업은 판매시장의 확대와 회사의 이익증대를 목표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통하여 회사의 상품을 해외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 | |
|--------------|-----------------|
| ① 해외시장 조사 | ② 해외영업 상품 분석 |
| ③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 ④ 해외 잠재고객 발굴 |
| ⑤ 해외거래 제안 | ⑥ 해외고객 협상 |
| ⑦ 국제계약체결 | ⑧ 해외영업 계약 이행 관리 |
| ⑨ 해외 클레임 처리 | ⑩ 해외고객 관리 |

NCS 직무명 : 수출입관리

[직무정의]

수출입관리는 무역업무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사전준비, 수출입 위험관리, 수출입마케팅, 수출입계약, 수출입운송보험, 수출입통관, 수출입대금결제 등을 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 | |
|-----------|-----------|
| ① 수출입사전준비 | ② 수출입위험관리 |
| ③ 수출입계약 | ④ 수출입운송보험 |
| ⑤ 수출마케팅 | ⑥ 수입마케팅 |
| ⑦ 수출통관 | ⑧ 수입통관 |
| ⑨ 수출대금결제 | ⑩ 수입대금결제 |

NCS 직무명 : 물류기획

[직무정의]

물류기획은 효율적인 물자 흐름 관리를 위해 고객관리, 물류거점 네트워크 설계, 재고, 운송 및 보관 하역 등 물류 기능의 전략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일이다.

[능력단위]

- | | |
|----------------|--------------|
| ① 물류 전략기획 | ② 물류 고객관리 |
| ③ 물류거점 네트워크 설계 | ④ 재고관리 기획 |
| ⑤ 운송관리 기획 | ⑥ 보관하역관리 기획 |
| ⑦ 물류성과관리 | ⑧ 물류정보시스템 활용 |



취업성공
수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성○○ 추가 내용없음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김○○ - 일반행정 분야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합격정보

- 기 업 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졸업년월 : 2022년 02월
- 입사년월 : 2021년 08월

■ 기본 인적사항

- 영어점수 : TOEIC 750
- 평균학점 : 3.99
- 자 격 증 : 재경관리사, 신용분석사
- 취업시 연령 : 28세
- 인 턴 섭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1 상반기 체험형인턴
(2021.04.~2021.08.)
- 해외경험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환학생 (1년)
- 봉사활동 : 약 180시간의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

■ 취업 준비 과정
1. 금융공기업에 대한 진로 설정 과정

러시아 교환학생 생활 중에 러시아어를 무기로 취업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많은 기업의 실무진들은 대개 이과 출신이었고,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과 대학생인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2년 간 회계사 공부에 전념했지만 연속으로 시험에 낙방하였고 차선책인 금융공기업으로 관심을 돌리게 됐습니다.

금융공기업을 차선책으로 생각한 이유는 경영 직렬 필기시험이 회계사 시험에서 다루는 재무회계, 경영학, 재무관리, 경제학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영학과 회계학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 회계사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금융공기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 금융공기업이란?

대표적인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과 보증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금융공기업은 A매치, B매치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누어

진 기준은 필기시험을 치르는 날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금융공기업들은 필기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금융공기업들이 채용일정을 다르게 정하면서, 위치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금융공기업의 채용과정은 서류평가 - 필기전형 - 면접전형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서류전형은 합격 배수가 높은 편이라, 기업 분석이 철저하고 자소서를 어느정도 쓰시는 분이라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논술형 문제도 출제되는 만큼 본인이 필기공부가 얼마나 되어있는가가 합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전형은 직무면접, 토론면접, 임원면접으로 1, 2차 2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금융공기업 준비를 위한 스펙관리

- 1) 금융공기업에 지원한다면 무리한 스펙 쌓기에 집중하지 말 것!
(최소한의 스펙정도만 갖추자!)
- 2) 금융공기업에서 단연코 중요한 것은 필기시험이다.

저는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위에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공기업은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다수의 자격증, 다수의 입상경력이 전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펙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금융공기업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스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스펙관리'는 금융권 관련 인턴경험과 지원 직무(경영 및 경제)관련 전공 수업 또는 공모전입니다.

금융공기업 면접에서는 실제 인턴 경험과 관련된 질문과 의외로 대학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본인이 인턴경험이 없다면, 금융공기업 또는 금융권에서의 인턴 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전공자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한 관련 전공 수업을 듣는다거나, 복수전공 또는 경영 및 경제 수업을 대학에서 꼭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2021년 3월부터 회계사 공부에서 금융공기업 취업준비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4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체험형 인턴에 합격하여 약 4개월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3월에는 한국사와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턴 중에는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인턴 경험 1회, 직무 관련 자격증 2개, 학점은행제 및 전공 수업이 제 스펙의 전부입니다. 대기업이나 타 기업에 지원하는 스펙과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면접전형에서는 관련 직무 경험과 지식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공기업을 지원하는 분들은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4. 금융공기업 준비 5개월만에 최종합격으로 이어진 노하우!

취업성공 수기

2021년 3월 금융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2021년 8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채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노하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 합격의 비결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서류전형은 철저한 기업분석이 먼저다!]

제가 취업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소서 쓰기였습니다. 내 경험은 이것 밖에 없는데... 내 스펙이 너무 초라한데... 쓸 말이 없는데... 등등 채용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첫 단계인 자소서는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자소서를 썼던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에서 광탈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했고 많은 선배들에게 자소서에 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썼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철저한 기업분석과 기업과 제 경험을 연관시키며 자소서를 썼고 서류 합격률이 높아졌습니다.

기업분석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몇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해당 기업의 이슈 기사 등을 면밀하게 보는 것이 기업 분석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기업 실무진이 작성한 사업보고서, 경영전략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무진의 눈높이에서 외부에 발표하는 보고서들인 만큼 쉽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서 해당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슈 및 문제에 직면해있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이런 기업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소서는 면접전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성을 기울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공기업은 무조건 필기 공부 우선이다!]

금융공기업 합격의 지름길은 무조건 필기입니다. 금융공기업은 경영/경제 필기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은 보통 일반경영, 재무관리, 재무회계 과목이며, 경제는 미/거시 경제학, 국제경제학 과목입니다.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꽤 높고 합격 배수 또한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이며, 고스펙자라도 필기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스펙은 무용지물입니다. 필기 공부와 범위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회계사 1차 교재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공부했던 교재와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교재 및 강의
----	---------

취업성공 수기

일반경영학	전O환 경영학에센스(기본 이론 교재) & 전O환 객관식 경영학 & 하루에 끝장내기(정리교재)
재무관리	김O길 재무관리 기본서 & 김O길 재무관리 연습서 & 김O길 객관식 재무관리
재무회계	김O호 회계원리 → 김O동 증급회계/김기동 워크북(정리교재) → 김O호 기출베스트(객관식)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공부시간과 공부 진도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8~10시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전공자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본인이 전공자라면 좀 줄여도 좋습니다)

오전/오후 강의 3개씩 총 6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강의를 복습하며
진도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저는 오전에는 회계 오후에는 재무관리 이런식으로 두 과목을 하루에 같이 공
부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과목만 8시간 이상 공부하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무조건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을 탄탄하게 잡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
니다.

객관식문제풀이로 넘어가면 강의 듣는 것은 최소화하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
는 것에 집중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개념에 대해 알게되며, 반복적으로
풀다보면 문제를 푸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또한 경영학 과목들은 휘발성이 높
은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면서 머리에 계속 남기
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문제에 체크해놓는 것이 중요합니
다. 사실 공부를 하다보면 느끼는게 있는데 맞추는 문제는 또 풀어도 맞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틀립니다. 이 원인에 대해
제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어렵스럽게 알고있는 것을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
문입니다. 3번 이상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은 반드시 오답노트를 통해
완벽히 알 때까지 공부해야합니다. 가장 위험한 공부법이 틀리고 답지를 보면
서 '아.. 뭐야? 이거 나 아는건데 여기서 실수해서 틀렸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
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반드시 틀립니다. 이러한 공부법은 시간만 낭비
하는 가장 안좋은 방법이니 반드시 틀린 것을 더 집중해서 보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객관식 문제를 손으로 직접 풀이과정을 쓰며 푸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회계사 2차 교재(논술형) 연습서를 푸는 것은 대단히 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도 너무 높고 공부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 동기들 중 대부분이 1차 교재만으로 필기시험
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공부의 범위를 넓히는 것
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전형은 반드시 스테디를 구성하여 준비하러]



취업성공 시기



[주요평가요소]

- 직무 적합성 : 수강교과목, 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일경험) 등
- 조직 적합성 : 인성 및 태도, 기업 인재상 및 핵심가치 적합여부, 미래비전 등
- 직무역량이 중요시되는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역량, 그 역량의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주요평가요소]

- 많은 기업들이 자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이후 인적성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사기업 : 수리논리, 추리 등의 영역을 기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리력과 사고능력을 평가(GSAT 기준)
- 공기업 : NCS 직업기초능력(10개 영역) 평가 기반으로 시험이 구성되며, 공기업마다 채택하는 영역의 수는 다르지만, 주로 6개 영역(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조직이해&정보능력)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면접전형은 반드시 스테디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인턴 면접과 공채 면접 모두 스테디 구해서 준비했었습니다. 스테디를 하면 좋은 점은 면접에 임하는 자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선처리, 말투, 몸을 흔드는 등의 불필요한 자세 등과 같이 안좋은 습관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접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함께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스테디원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실제 면접에서도 덜 긴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이 항상 비슷한 질문으로 이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동기 - 직무관련 경험 - 지원자의 가치관과 회사의 비전 연결 - 지원회사와 관련된 사업 및 이슈 관심도

서류를 작성할 때 지원동기는 반드시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가치에 집중해서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에 지원동기를 작성할 때는 상생의 가치관을 쏟아왔고 상생의 가치를 해당 기업에서 지원한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이뤄내겠다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소재목을 활용하고 최대한 보기 좋게 문단을 나누어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직무관련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인턴을 꼭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보통 3개월 정도 근무하며, 관련 직무 경험으로 어필이 충분히 되는 만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금턴'이라는 말이 될 만큼 인턴이 되는 것조차 어렵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 두드려보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턴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경험 혹은 팀 과제 경험을 직무 경험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회사와 관련된 사업 및 이슈 관심도 자소서 문항은 반드시 철저한 기업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수준으로 준비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회사의 사업보고서 혹은 경영전략 관련 자료를 꼭 챙기시어 질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관련 기사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썼었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여 쓰기도 하였습니다. 현상에 대한 요약 서술보다는 배경-문제점-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적성 후기 및 준비 과정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필기는 통합전공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표적인 통합전공 필기를 치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전공은 경영+경제+법률로 공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문제 난이도는 단일전공에 비해 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률은 민법 중에 채권과 관



[주요평가요소]

- 보편적으로 기업은 2단계 면접으로 진행
 - 1차 면접 : 직무면접, 실무진 면접
 - 2차 면접 : 인성면접, 임원면접
- 기업/직무에 따라 PT 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이, 영어면접 등을 진행
- BE(경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검증하고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면접유형이 확대, 자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

련된 것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부분이 법률은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영과 경제를 공부하고 NCS를 중간이상으로 보는 것이 최적의 합격전략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단일전공 + 논술 필기가 특징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NCS는 없습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경제시사이슈와 단일 전공이 출제되었습니다. 1차 허들을 넘어선 지원자들에 한해서 2차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을 합니다.

1차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회계사 1차 수준보다 훨씬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경제시사이슈가 꽤 까다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대비가 안되는 것 같고, 평소에 경제시사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논술은 단답형 2문제(회계, 재무관리)와 주택금융공사 사업 SWOT 분석과 마이클포터의 5FORCE 분석이 나왔으며, 금리인상시 유동화증권 리스크 헷지(재무관리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공공의 경우 2차 논술이 항상 공사 상품이나 사업을 경영학과 연관지어 나오기 때문에,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사 홈페이지와 주택금융연구원 자료를 통해 시험을 준비했고 여기서 다뤘던 주제들이 시험에 나와 무난하게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 **면접 후기 및 준비 과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1차 면접(직무능력면접)과 2차 면접(임원면접)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면접은 직무면접+상황면접+PT면접으로 총 세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차 면접의 가장 큰 벽은 PT면접입니다. 8~10분 동안 랜덤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금리인상시 공사가 겪는 리스크를 제시하고 리스크를 헷지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였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였지만 면접스터디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라 제 생각을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직무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은 전공 수업 중 경제통계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계 공부에 대한 관심도와 직무 수행에 있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니다. 저는 다중회귀분석에 대해서만 서술하였는데, 공사 업무 수행 시에는 다중회귀분석 이외에 다양한 분석법을 사용하는데 지원자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어떻게 보완할지였습니다. 저는 인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인턴 업무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받았 습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인데 자소서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 과정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자는 공사 가치중 협동심에 대해 서술했다. 다른 가치에 대해서 알고있는가? 알고있다면 그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처럼 자소서에 기술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확장해서 질문을 하는 느

취업성공 수기

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접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본인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도전하라!]

금융공기업의 자주 붙는 수식어는 ‘신의 직장’입니다. (신은 직장을 다니지 않을텐데 말이죠...) 고연봉 + 고용안전성 + 워라밸 모두 갖춘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위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융공기업에 합격하여 입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저같은 사람도 해냈습니다. 저는 제가 위와 같은 수식어를 들을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전했고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는 것을 종종 봅니다. ‘거기는 너무 높지 않아요?’, ‘제가 SKY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곳에 가겠어요’ 등등 도전하기 전부터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더 높은 곳을 도전할수록 그 밑이라도 간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회계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에 입사한 것처럼 말이죠.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제가 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말은 도전하라! 입니다. 도전은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한대로 그 가능성을 확장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정보

- 기업명 : 대한민국정부
- 졸업년월 : 2019년 08월(예정)
- 입사년월 : 2021년 05월(예정)

■ 기본 인적사항

- 영어점수 : TOEIC 985점
- 평균학점 : 4.26
- 기타 외국어 : 일본어(JLPT N1 180점)
- 취업시 연령 : 만 22세

■ 시험 후기 및 작성 Tip

• 1차시험 후기

1. 헌법

2016년 2학기에 학교를 다닐 적에, 법과대학에서 열린 김영진 교수님의 헌법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한 학기에 걸쳐 헌법이라는 과목을 충분히 흥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들인 결과, 이후의 헌법 공부에 있어 훌륭한 기초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금동홍 강사님(베OO 학원의 '8×80 특강'을 인강으로 수강하고, 동강사님의 '최신 판례 무료특강'과 '조문 무료특강'을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초시(2017년) 때도 재시(2018년) 때도 이렇게 헌법을 준비한 결과 안정적인 점수를 냈습니다. 올해는 이른바 '헌법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헌법 과락율이 높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인사혁신처에서 올해와 같은 헌법 출제경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만큼, 헌법은 판례보다도 조문 위주의 공부가 더 바람직한 접근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2. 공직적격성평가(PSAT)

2016년 2학기에 학교 고시반(선예원)에서 머물며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반원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해 공부했습니다. 스터디원은 저와 전공이 달랐는데, 그러다보니 같은 문제를 두고서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접근하는 관점이 달라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예원에서 PSAT에 대한 감각을 처음 키운 뒤, 2017년 1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 신림동 고시촌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PSAT은 초시때 총 4시간 정도로 구성된 논리논증특강(베OO스 학원 여OO 강사님)을 들은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강의를 듣거나 강사 모의고사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저널에서 주관하는 전국모의고사도 몇 번 응시하긴 했으나, 문제 퀄리티가 정말 제 취향이 아닌지라 마지막 모의고사 날에는 모의고사 문

취업성공 후기

제지는 그냥 버리고 제가 실제 시험지 크기로 뽑아간 과거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PSAT형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라(2016년 4월쯤에 풀었던 첫 PSAT[2007년 기출문제]에서 60.00점을 받았습니다), PSAT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관해서는 꽤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다른 결론은, '오답 노트를 철저히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틀리거나 애매하게/찍어서 맞춘 문제(이하 '틀린 문제'라 함)를 두고, 해당 문제의 유형(예: 논리추론형, 도표해석형, 법조문형)과 해당 문제를 틀린 원인의 유형(예: 함정에 빠짐, 문제가 고난이도, 시간부족으로 인한 페이스 붕괴, 단순실수)을 기록하고, 40문제를 10문제씩 4개 구간으로 분류해 어느 구간에서 주로 많이 틀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 '내가 고른 답과 그 이유', '정답과 내가 그걸 고르지 못한 이유', '이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 '다음 번에 이러한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탐구했고, 그 탐구의 결과들을 전부 오답노트 공책에 기재했으며, 두고두고 다시 꺼내 볼만한 사항은 색깔펜 등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번 회차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느꼈고, 이번엔 느낀 것이 다음번에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떻게 반영되기를 희망하는지 등도 전부 글로 적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비법이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쓰고 있는 것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답노트만 철저히 쓰는 방식으로도 PSAT 점수를 30점 가까이(최고기록: 87.5점) 끌어올렸기 때문에, PSAT 준비에 있어서는 오답노트에 관한 것 말고는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모두에 정확히 동일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목별로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도 없거나 서술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1차시험에서도, 컷트라인과 크게 차이나는 점수를 기록하여 상위 3.4%정도의 성적으로 넉넉하게 합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PSAT 점수는 분명히 올릴 수 있으며, 그를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나 특수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PSAT 준비의 시작도 끝도 전부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차시험 후기

1. 개요

고시공부의 꽃인 2차시험이 어려운 본질적 이유는 '범위의 방대함'에 있다고 봅니다. 각 2차과목의 시험 수준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각 과목의 학부 3~4학년 수준에 해당하며, 따라서 2차시험은 결국 '시험범위가 (조금 많이) 넓은 기말고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고시공부는 내용의 난이도 그 자체보다는 시험범위가 넓은 까닭에 어려운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천재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저나 대다수 학우님들과 같은 일반인에게는 필연적으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문제상황을 들이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고시공부의 핵심은, '밀 빠진 독의 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편, 국제통상직렬의 2차시험 과목은 '행정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영어', '선택과목'의 다섯가지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 만점)인데, 저는 선택과목으로 '일본어'를 골랐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2차 시험 5개 과목을 '법학류 과목', '경제학류 과목', '어학류 과목'이라는 세 카테고리 로 나누어 서술하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2016년 2학기에 선예원에 재실하면서 학교측의 지원을 받아 행정법과 국제경제학 등 주요 과목들의 이론강의(1순환)를 들어두었는데, 이처럼 이론강의를 사전에 미리 들으면서 기초를 다져둔 것은 이후의 수험기간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 법학류 과목 : 행정법, 국제법

(1) 방법론

경제학류 과목과는 달리, 법학류 과목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답안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즉,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세부사항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법리, 관련 학설과 판례 등을 일일이 공부해 둘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법학류 과목의 이러한 특징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17년도에 수강한 행정법 3순환(한O법학원 박O원 강사님)에서 배운 이른바 '누적적 리마인드'를 저 나름대로 커스터마 이징하여 법학류 과목 대비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은 박O원 강사님이 추천하시는 이른바 'TRS 학습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TRS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박O원 강사님의 Daum 카페[도원행정법 연구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명 '밑 빠진 독'일지라도 꾸준하고 집요하고 반복적인 회독을 통해 독의 수위가 미처 낮아질 틈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활용한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은 굉장히 직관적인 전략입니다. 즉, 행정법과 국제법 양 과목의 (거의) 전범위를 답안지 형식으로, 실전 답안지에 거의 그대로 옮겨적어도 손색이 없을 분량과 밀도로(즉, 이른바 '자기최고 답안'으로) 타이핑해 정리/압축한 뒤, 그것만 반복해서 눈에 바르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기최고답안의 작성은, 기본서나 강사자료, 논문 등을 종합해서 논리 정연하게 배치해야 하니만큼,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작성해두면 끝인 것이 아니라, 추후 순환 강의나 답안지특강 등을 통해 꾸준히 검수받고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최고답안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법학 공부 가 되는 효과 자체가 상당히 큰 데에다가, 시험 막판에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볼 필요 없이 본인이 작성한 자기최고답안만을 누적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것만으로 시험준비를 끝낼 수 있으며, 실전 답안지와와의 호환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기최고답안 작성이 얼추 일단락된



취업성공 후기



뒤,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처음 수강한 국제법 실강[2018 대비 2순환] 중 국제경제법 파트에서, 전체 최고답안 중 약 1/3 남짓은 제 답안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일반국제법 파트에서는 손목 과사용으로 인한 건초염 증상으로 인해 답안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법학류 과목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으로서, 거의 전범위를 '자기최고답안' 형태로 압축한 뒤, 그것을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답안감각을 익혔습니다. 자기최고답안은 처음 만들 때와 처음 눈에 익힐 때가 힘들다는 진입장벽이 있을 뿐이지, 그 장벽만 넘어서면 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2시간 이내)로 각 법학 과목의 전범위를 1회독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법학과목에서 내용의 휘발성이 너무 강해 고생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과 국제법은 참고자료의 양이나 범위의 넓이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자기최고답안 작성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비법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올해 시험의 경우

사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1년 내내 만성적인 손목통증으로 고생해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행정법과 국제법의 경우 100점 분량 답안을 시간 재고 작성한 것은 시험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연습량 부족때문인지, 행정법-국제법 과목의 성적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저조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특히 국제법의 경우, 제1문의 설문2(30점)에서 저는 해당 조치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 TBT협정으로도 검토하느라 분량상 GATT를 통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빈약해지게 되었습니다만, 올해 국제법에서 수석하신 분께서는 GATT로만 검토하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을 통해 꾸준히 답안감각을 익힌 덕분에, 100점 짜리 답안작성연습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과 국제법 모두 실전에서 시간에 기지 않고 10페이지를 딱딱 채워서 넣을 수 있었고, 행정법의 경우 심지어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퇴고작업도 거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학류 과목에서 합격생 중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저로 하여금 컷트라인에서 6점 이상 차이나는 점수로 최종합격하게끔 해주는 탄탄한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경제학류 과목 : 국제경제학

(1) 방법론

국제경제학은 제가 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배웠던 과목이기도 하고, 수강하는 인구가 많은 덕분에 (국제법이나 어학류 과목과 달리) 참고 자료가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류 과목은 결국 '기본 원리만 성공적으

로 이해하면 그 뒤는 피지컬로 어떻게든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국제경제학 과목의 접근법을 생각해보건대, 기본 원리를 이해해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즉 여러 문제를 접하며 '경제학식 문제풀이'의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지컬 또한 따라붙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도, <국제경제학 연습책(한O법학원 황O휴 강사님)>과 더불어, <국제경제학의 ZIP(베O스 김O욱 강사님)>, <국제경제학 200제(글O법학원 유O석 강사님)> 등 여러 문제집을 한번씩 주욱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풀이 연습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서 수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문제풀이 연습과는 별도로, '답안작성 스킬'을 다듬기 위한 투자도 약간은 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 초시때 시험을 몇 주 앞두고 전년도 재경직 합격자(유예생)분께 답안작성 스킬을 전수받고자 몇 차례 과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 ① 목차명을 좀 더 가지적으로 (즉, 아래 무슨 내용이 나올지 즉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잡는 것이 좋든가, ② 교과서에 실린 그래프 등을 답안에 그대로 현출하면 좋든가, ③ 여력이 된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표 등으로 정리하면 좋든가 하는 어드바이스들을 받았고, 초시때 한번 점검 해둔 덕에 그 뒤로는 별달리 점검하지 않아도 쫓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경제학 또한 나름대로 단권화 작업을 해두긴 했습니다. 이는 법학류 과목처럼 '답안지형태'로 해두지는 않았고, 시험 당일날 아침에 좌르륵 한 번 쪽 훑어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범위 요약정리본에 가깝습니다. 이 단권화에는 제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나, 답안에 작성하면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예 : 한정성 원칙, 차선의 이론, 외환시장의 효율성 정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을 색갈펜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 올해 시험의 경우

올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국제경제학이 80점대 초반에 달할 정도로 흥분을 쳤다는 점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손목 통증으로 인해 국제경제학 또한 2시간짜리 답안작성 연습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국제경제학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전 답안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제2문 설문3에서 '부의 효과'가 무엇인지 몰라서 소설을 썼는데도 점수가 꽤 높게 나온 것을 고려하면, 국제 경제학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즉, 남들이 다 못 쓸 만한 건 가급적 덜 망하도록 짧은 시간 내에 방어해두고, 남들이 다 쓰는 걸 남들보다 잘 쓰기 위해 조금 더 투자하는 시간배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에서 제 답안지가 좋게 평가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 나름대로 고민해보았는데, 제2문 설문1에서 립진스키 정리의 수식적 증명을 현출한 점, 제3문 전반에서 '외환시장의 효율성 이론(E. Fama)'이라는 테마에



취업성공 후기



착안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된 UIRP모형'의 의의 및 한계 등을 정확히 현출해내려고 애썼다는 점 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4. 어학류 과목 : 영어, 일어

(1) 방법론

예전에 어딘가에서, 법학류·경제학류 과목은 이른바 '보스몐 레이드'에 가까운 반면, 어학류 과목은 '필드몐 사냥'에 가깝다는 인상 깊은 비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어학류 과목은 그 특성상 논문과목 특유의 '논리적 긴장감'이 없고, 단기간에 실력을 갑자기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특징을 은유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어학류 과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찍부터 꾸준히 기본기를 쌓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휴학하고 고시촌에 입성하기 전까지 선예원에서 어학류 과목을 끝내놓자'는 목표를 세우고,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전력질주할때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단어 암기'라는 작업을 미리미리 해두자는 주의였습니다. 단어는 미드·일드나 영자신문·일자신문, 어학류 과목 2차 모의고사집에서 나온 모르는 단어들을 위주로, 선예원에서 학생식당으로 오고가는 시간 및 식사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살려 Quizlet 단어장 어플을 활용해서 외웠습니다. 외운 단어 및 언어감각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는, ① 식사할 때 스마트폰으로 단어장을 자동재생 시켜둔 뒤 단어들을 눈에다가 바르거나, ② 매일 아침 선예원(휴학 이전)이나 독서실(휴학 이후)에서 30여분 동안 영자신문·일자신문을 읽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유명한 수험교재인 <VOCA 30000(합O의 법학원 정O한 강사님)> 책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한영 번역이나 에세이에서 구태여 이런 단어들을 쓸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영한 번역을 대비하기 위한 것뿐이라면 차라리 그때그때 의역을 하고 마는 게 낫지 않겠냐는 느낌이 들어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한편, 합격생 선배(유예생)께 2017년 1월 한 달 간 영어과외를 몇 회 받았었는데,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 및 에세이 작성요령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학 과외를 꾸준히 받지는 않더라도, 초기에 방향성을 잡기 위해 잠깐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담으로, 스테디의 경우, 일어는 스테디가 도무지 구해지지 않아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했습니다. 영어는 두어번쯤 스테디를 하긴 했으나, 시간 대비 효용이 별로인 것 같아 결국에는 혼자 했습니다.

(2) 올해 시험의 경우

올해 2차시험을 대비하면서 제가 과목별로 할애한 시간과 노력의 비중을 따지자면, 국제법이 50%, 행정법이 25%, 국제경제학이 20%, 그리고 어학류 과목이 5%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학류 과목에 나름 자신이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손목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부시간 확보에 크나큰 난항을 겪어, 부득이하게 (제일 만만한) 어학류 과목에 대한 시

간투자가 적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어는 작년에 비해 20점 이상 폭락했습니다. 아무리 올해 영어가 역대 최악의 난이도였다고 하더라도, 영어 과외를 받을 적에 선생님께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OO씨는 더 이상 영어 공부 안하셔도 되겠는데요”라는 극찬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점수였습니다. 일어는 (30대 후반으로 고득점하기는 했지만) 모르는 단어나 실수도 거의 없이 완벽에 가깝게 쓴 것 같아 40점대 중반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팩트만 놓고 보자면 결국 제가 어학류 과목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학류 과목은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영어 과목의 편차가 매우 컸으니만큼, 영어를 잡지 않고서는 국제통상직렬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노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 3차시험 후기

1. 개요

일행직이나 재경직 등 대형직렬들의 관점에서 본 면접수기는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 있기에, 여기에서는 국제통상직과 같은 ‘소수직렬’에 초점을 맞춘 면접수기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5급공채의 면접시험은 ‘집단토의(GD)’, ‘개인발표(PT)’, ‘인성면접’이라는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면접 준비과정

(1) 기본적인 마음가짐

3차시험에 임하는 전략에는 크게 ‘우수를 노리는 전략(이하 ‘우수 전략’이라 함)’과 ‘보통을 노리는 전략(이하 ‘보통 전략’이라 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자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3차시험에서 ‘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면접관님들의 눈에 띄어야 하며, 눈에 띄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발언횟수 측면에서든, 발언 내용 측면에서든) 많이 나설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무난함을 포기하는 전략이니만큼 까딱 잘못하면 ‘미흡’을 받을 우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차시험에서 1.3배수만이 남은 상황하에서, 자신이 1배수와 1.3배수 사이의 위험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우수 전략’을 지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면접 당일에도 남들을 누르고 내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자신의 2차성적을 믿고, ‘나는 면접에서 미흡만 받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담이지만, ① 어차피 3차시험에서 ‘우수’를 받았는지 ‘보통’을 받았는지는 최종 결과발표 때는



취업성공 후기



공개되지 않으며, ② 직렬석차 집계는 2차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수'와 '보통'의 구별실익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1배수와 1.3배수 사이에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굳이 '미흡'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까지 '우수 전략'을 추구할 유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스터디 구성

소수직렬의 면접스터디 구성은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입니다. 즉, 2차시험 발표 다음날 법률저널에서 면접 설명회가 열리고, 설명회가 끝난 뒤 직렬별로 알아서 어떻게든 설명회장 한 구석에서 모이며, 그곳에서 같은 직렬 2차 합격생들끼리 통성명을 하고 카톡방을 개설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수직렬은 2차합격생이 전부 모여서 1개의 면접스터디를 짜게 되기 때문에, 대형직렬과 같이 행사사랑 등 커뮤니티를 예의주시하며 면접스터디를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소수직렬은 3차시험 준비가 대형직렬에 비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실제 3차시험에서는 직렬별로 면접조를 편성하게 되니만큼, 같은 직렬 사람들끼리 3차시험 준비기간 동안 조를 섞어가며 미리 합을 맞춰본다는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직렬 수험생들끼리는 3차시험 당일날 아침 면접조를 확인하고 그때서야 서로 얼굴과 이름을 익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소수직렬의 경우 서로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특징이나 성향 등까지 전부 알고 시작하는 만큼,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크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통직의 경우에도, 예년처럼 2차합격생 전원(14명)이 함께 면접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3) 구체적 준비과정

가. 전체적인 방향성

보통 면접스터디에는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이 몇 분 섞여계시기 마련이고, 보통은 이 분들이 과거 면접 준비 경험을 되새기며 면접스터디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주십니다. 단, 올해 국통직의 경우 이변이 많았는데, 그 중 한 가지를 꼽자면, 2차 합격생 중에 면탈자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과거에 최종합격하신 현직자/연수생/유예생 선배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면접준비를 참관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소수직렬의 메리트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차피 해당 직렬을 준비하는 전체인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1·2차 시험을 준비할 적에도 서로 알음알음 교류하고 지내기 마련이며(우스갯소리로, 국통직에서는 한 다리만 건너면 모든 수험생들이 연결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년도에 최종합격하신 선배께서 전에 같이 공부했던 당해년도 2차합격생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주는 유대가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면접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것

취업성공 후기



은 바로 '장소 확보'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겠지만, 그룹을 쪼개서 GD, PT, 인성면접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넉넉잡아 4개의 방이 상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통직 면접스터디의 경우, 서울대에 재학 중이신 스터디원분들께서 발로 뛰며 여기저기서 학생증을 빌려 세미나실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서울대에서의 장소확보가 녹록치 않았던 날도 몇 번 있었는데, 이런 때에는 제가 평소에 친분이 있던 고시촌 모스터디룸을 빌려 어찌어찌 하루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3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간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집단토론(GD)

(가) 개요

GD의 자세한 구성은 매년 달라진다는 것 같으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올해의 경우, 30분 동안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뒤, 1개 면접조(4인~6인) 전체가 면접장에 들어가 6명의 면접관 앞에서 각자 2분 이내로 모두(冒頭)발언을 진행하고 자유토론을 한 다음 면접관으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GD에서 어떤 입장을 지지해야 하는지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배부되는 자료도 찬성측과 반대측이 상이합니다.

(나) 준비과정

면접학원 자료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해서 모의고사를 풀듯이 준비했습니다. 2차시험 모의고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단' 토론이다보니 여럿이서 참여하게 되지만요). 이때, 소수지령의 특성상 모든 2차합격생들이 서로 미리 합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전 GD에서 사용할 공식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예컨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이른바 '의사진행발언'을 총 몇 개로 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말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다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면에 전부 적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면접스터디가 구성된 후 전직 면탈자 분이나 합격생 선배께 여쭙보시는게 더 효과적일 듯합니다. 즉, 본 수기로부터는, '소수지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의 설정 등과 같은 사항을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상만 얻어가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토론 참가자 간 발언횟수가 지나치게 불균형한 것은 총체적으로 안 좋은 인상을 준다고들 합니다. 이에, 토론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발언횟수를 체크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다) 올해 시험의 경우

올해 국통직렬의 GD 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찬반'이었습니다. 국통직은 행정법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래적의 미의 과징금'이라든가 '국가책임초안상 compensation의 의미' 등에 관

취업성공 후기

해서 미리 배우는만큼, 친숙하고 평이한 주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제시자료로는, 국내외의 관련 입법현황이나 설문조사자료 등이 있었는데, 면접학원 자료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이 자료로 30분 동안 A4 백지에다가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토론 자체는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면접관님들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토론 이후의 질의응답은, ① 각 면접관과 그에 대응하는 수험생의 1:1 질문, ② 찬성팀/반대팀 공통질문, ③ 전원 공통질문, 이 세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고, 각 유형에서 몇 개씩의 질문이 나오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질문으로서 주로 나온 것은, 토론시에 했던 발언의 구체화 요청이나, 토론시에 했던 발언에 대한 현실적 측면의 반론(딜레마상황 제시,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등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나 압박질문은 없었습니다.

다. 개인발표(PT)

(가) 개요

PT는, 5페이지 남짓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진 주제에 관해 A4 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즉석에서 작성한 뒤, 그것에 관해 7~8분 간 발표하고, 12~13분간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작년부터는 PT 면접과 함께 '상황면접'이라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게끔 바뀌었는데, 상황면접은 인성면접중 딜레마문제와 거의 정확히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참고로, PT면접용 보고서 작성과 상황면접용 자기기술서 작성은, 둘을 합쳐서 30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이거 시간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PT 보고서는 먹지 포함 총 4장 짜리 용지에 작성하게 되어, 먹지 3장을 각 면접관님들께 드리고, 맨 앞의 한 장은 발표용으로 응시자 본인이 갖고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상황면접 기술서는 먹지 포함 총 3장짜리여서, 면접관 3분께 한 장씩을 드리고, 응시자 본인의 몫은 없습니다(즉, 자기가 작성한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준비과정

PT 및 상황면접 또한, 학원자료를 구해 면접스터디원들끼리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PT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마 3차 시험의 꽃이자 가장 고난이도인 작업일 것인데, 그러니만큼 어느 정도 연습량은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돌려보면서, 자기 보고서의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차시험 답안작성 스터디와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목차흐름이나 들여쓰기 요령, 워딩을 결정하는 패턴 같은 것을 미리 고민해둔 뒤, 실전에서는 그런 고민 없이 슈루룩 보고서를 작성해낼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PT 보고서와 상황면접 자기기술서를 30분 이내에 쓰는 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수원에서 한창 보고서 작성요령을 배우다 오신 선배



남들께서 PT 보고서 작성에 관한 조언을 특히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PT 보고서의 경우, 먹지가 3장이 딸려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펜을 꼭꼭 눌러쓰지 않으면 맨 뒷장까지는 글씨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심산이 큼니다. 이 또한 연습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7~8분 동안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PT 보고서 자체의 내용 이외에도 가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데, 이 가필을 약간만이라도 세계 쓰면 뒷장에 가필 내용이 비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 올해 시험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PT 보고서보다 상황면접 기술서를 먼저 5분 이내로 어떻게든 끝낸 뒤, 남은 25분 동안 보고서를 쓰는 방식으로 연습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더 편해서였습니다. 올해 PT면접의 주제는, '지방소멸현상의 원인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제안'이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시골 청소년들의 도시선호현상, 낮은 출산률, 국내 외 관련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소멸 현상의 원인 중 '낮은 출산률'이라는 측면에 지면을 할당해버리면 (출산률 저하 문제 자체가 워낙에 방대한 문제이니만큼) 보고서가 산으로 갈까 봐 일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전략적으로 누락시켰었습니다. 면접관님께서도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지적하셨으나, 저는 '낮은 출산률이라는 사회현상은 비단 지방소멸현상에 관련해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산률 부양 대책을 강구하다보면 지방소멸 현상 그 자체에 관한 대응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일부터 지방소멸현상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어보았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뱉은 대답이었지만, 의외로 면접관님들께서는 만족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이처럼, PT면접은 응시자로 하여금 아주 획기적이고 기동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하는 면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PT면접 주제로 보통 제시되는 사회문제들은, 정책당국 자신조차도 해결하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PT 질의응답과 상황면접이 끝난 뒤에 시간이 약간 남아서, 면접관님들이 지방부처가 어디인지, 해당 부처로 배치됨에 있어 다른 응시생에 비해 본인이 갖는 차별점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접준비 과정에서 미리 고민해두는 사항이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소위 썰을 좀 풀다 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 인성면접 및 상황면접

(가) 개요

인성면접은 30분 동안 3개 문항에 대한 자기기술서(먹지 포함 3장)를 작성한 뒤, 그것을 면접관님들께 드리고 (즉, 응시자 본인의 몫은 없습니다) 그에 관해 40분 동안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0



취업성공 수기



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면접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실전에서는 시간이 아주 빨리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체감상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시점에 이미 40분이 다 지나 있었습니다. 인성면접 문항의 유형으로는 ① 자신의 경험을 묻는 유형과 ② 딜레마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해보라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후자의 경우, 상술한 PT면접과 함께 보는 '상황면접'과 문제 유형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때문에 상황면접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 준비과정

인성면접 준비는 ① 자신의 경험(예컨대, 동아리 경험, 자원봉사경험 등으로 적어도 3가지 안팎)에 관해 정리해두고, ② 공직지원동기나 지방부처, 존경하는 인물, 좌우명 등 자잘한 예상문제들에 관한 대답을 준비해두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학원자료 등 예제를 두고 자기기술서를 시간 내에 작성하는 연습도 병행했는데, PT 보고서 작성과는 달리 인성면접 자기기술서는 시간이 상당히 널널하기때문에, 목숨 걸고 연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 올해 시험의 경우

인성/상황면접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위 '불의타'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굳이 필요할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인성면접의 경우, ① 조직생활에서 자신이 맡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경험, ② 한글날을 관공서 공휴일로서 10월 둘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한글단체 등의 반발 문제, ③ 다문화학교 설립에 관한 남비현상 등에 관해 출제되었습니다. 즉, '경험' 유형이 1문제, '딜레마' 유형이 2문제였습니다. 인성면접에서 제가 특별히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면접관님들과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이컨택을 하려 신경썼고, 무난무난하게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면접관님들이 응시생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딜레마 유형의 문제에서는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너는 어떤 마지노선까지 어떤 가치를 지지할 것이냐'를 묻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황면접의 경우, 질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인성면접 딜레마 유형 문제와 대동소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서술은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이제서야 밝히지만, 사실 저는 올해 국제통상직렬에 직렬최연소로 합격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저학년(2학년 1학기) 때부터 선예원에 입반해서 꾸준히 조금씩 공부해온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예원에서 나오는 강의비·식비지원도 물론 쓸쓸하고 든든하지만,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유



의미한 혜택은 '학습을 위한 개인공간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열람실 등과는 달리, 선예원은 '개인 선반'이 딸린 '개인 지정석'을 제공해서 학습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해둔 공간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생활공간과 공부공간을 명확히 구별지어야지만 학습능률이 나오는 타입이라 그러지,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보장된' 공간이 주어진다 는 것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최단경로로 공부장소와 생활장소 사이에서 왕복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도 그에 일조했습니다.

물론 고시촌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더 공부의 집약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학기를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병행하기에는 선예원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이라면, 선예원에 입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사무관(5급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처음 시작된다는 말도 있듯이, 행정고시(5급 공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에서 행정고시에 도전하는 인구가수가 서울의 여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적다고 느껴져 아쉬운데, 아마 이는 먼저 붙은 사람들과 후에 도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적은 탓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기를 남기는 것은 사실, 저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서 학우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부푼 희망 때문입니다.

수험생활을 거치며 제가 느낀 바로는, '고시'란 말은 '고시', '고시', '고시' 등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시는 '고시'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중요한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때문에 고시는 '고시'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외워서 처리하는 암기머신이 아닌, 논리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시는 '고시'이기도 합니다. 신경써야 할 게 많아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뜻깊은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 아주 가치있는 시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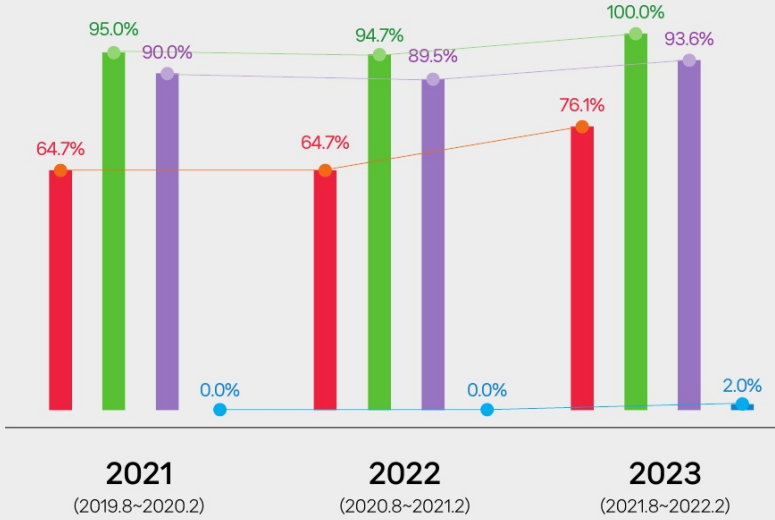
그러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다소간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학우님들보다 먼저 붙어 뒤라도 된 것 만큼 이렇게 합격수기관 것들 끄적이고는 있지만, 그게 제가 학우님들보다 특출나게나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 또한 이 시험에 붙기 위해 저 나름의 크고 작은 희생을 치러왔고, 그러한 희생이 운 좋게도 합격으로 이어진 것일 따름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에 많이 도전해 주세요.

지면 너머인 데에다가 제 글재주도 부족해 얼마만큼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학교에 있을 것 같으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취업경력개발원을 통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 닿는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취업통계분석 | 취업률 · 유지취업률 · 진학률

취업 및 진학현황

■ 취업률 ■ 1차 유지취업률 ■ 4차 유지취업률 ■ 진학률



연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유지취업률		진학률
						1차	4차	
2021	34명	34명	22명	0명	64.7%	95.0%	90.0%	0.0%
2022	36명	34명	22명	0명	64.7%	94.7%	89.5%	0.0%
2023	51명	46명	35명	1명	76.1%	100.0%	93.6%	2.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12. 31 공시취업률 기준 (대학 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참조)
- 기준 : 3개년 12월 31일자 공시 취업률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 취업률 산출방식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 진학률 산출방식 (진학자 / 졸업자) × 100

